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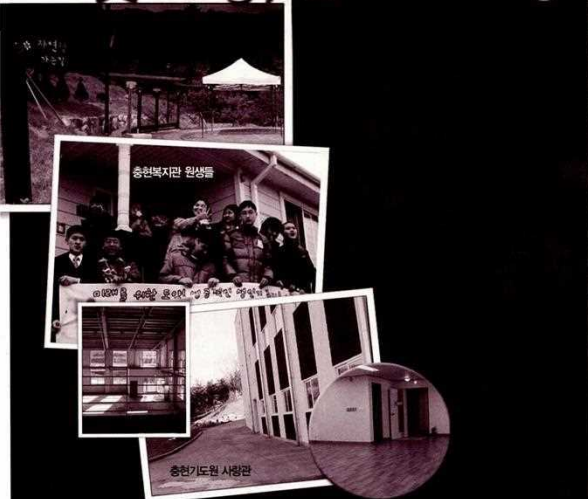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이웃 사랑, 십자가 사랑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5대 목표 중 마지막은 이웃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소홀하거나 등한시하지 않았고, 이웃 사랑을 위한 교회의 발걸음은 한 순간도 쉬어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막 12:30~31).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웃 사랑의 열매들이 이웃곳에서 맺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구제는 그리스도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잘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천재지변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돕고 있습니다(딤후 5:10). 이제 열여섯 살이 되는 충현복지관은 복음에 기초한 사랑의 실천 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타교회 성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충현동산의 자연장도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를 강하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충현기도원의 사랑관(다목적 숙박 및 체육시설)은 이웃 사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에도 그리스도의 십장(벧 1:8)을 가지고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향한 십자가 사랑은 계속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

2011년 제1차 청지기훈련

- | 주제 |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어!(눅 1:15)
- | 일시 | 2011년 2월 25일(금) 저녁 7시
- | 대상 | 모든 성도
- |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 | 장소 | 충현교회 본당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하나밖에 없는 경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다른 어느 열방도 이스라엘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능을 체험하지 못함을 구약이 보여 주고 있다. 구약 역사의 네 가지 요소인 선택과 구속, 언약과 유업의 이야기야말로 다른 어떤 민족에서도 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행하지 아니한 것들을 이스라엘 속에서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였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특별한 역사적인 체험을 하게 된 데에는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순조롭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 때문이었다(출 19:4~6).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민족과는 달리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신 4:39~40). 그들에게는 선교적인 사명과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실패하면 실제적으로 다른 민족들과 같은 현상으로 떨어지며, 열방과 모든 인류와 독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모스야말로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사가 어떠한 형편에 서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한 선지자다. 이스라엘이 그 본연의 의무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부인하고 있음에 대해 이스라엘만이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을 자들이 반역함으로 인하여 더 심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아모스는 보여 주었다(암 2:6~8, 11~12, 3:2). 그들의 역사 자체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고 핍박할 것도 없다고 외쳤다(암 8:10~11). 이토록 파격적인 선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골수를 흔들었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심한 말보다 더 크게 가슴을 찔렀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므로 이스라엘 자신의 역사가 가졌던 그 자격과 또 그 역사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회개와 상실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다른 열방이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열방들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아모스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그들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 하셨든지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이스라엘만이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위로를 주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특성이 곧 구약이 가르치는 내용의 본방한 한 부분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계심을 알고 있었지만(암 1:2~3, 6, 2:2~3),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만들어지고 부르심을 받고 열방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다(롬 4:13, 16).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선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소개하여 준다. 메시아가 곧 이스라엘이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또 인간이 되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주셨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존재해 온 모든 것의 완성이 곧 메시아였다(롬 5:1~2, 15).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스라엘의 이 특성에 참여하신다. 다른 어떤 나라를 통하여도 행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다른 어느 인간도 통하지 않으시고 오직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셨다. 단 한 사람 예수의 특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그 구속의 은혜를 내려 주시며,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다(롬 5:18, 21).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셨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시므로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셨다(갈 3:16, 26, 28~29). 아멘.

THE WITNESS OF A LOVING SPIRIT

⁽⁷⁾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from God; and everyone who loves is born of God and knows God. ⁽⁸⁾The one who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for God is love. ... ⁽²⁰⁾If someone says, "I love God," and hates his brother, he is a liar; for the one who does not love his brother whom he has seen, cannot love God whom he has not seen. ⁽²¹⁾And this commandment we have from Him, that the one who loves God should love his brother also. (1 John 4:7-21)

Today's Bible message comes from one of John's greatest passages. He is the author of five biblical books: The Gospel of John, 1 John, 2 John, 3 John, and Revelation. All five books emphasize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which is why they are extensively used for evangelism and Christian growth. Now believers are often advised to read the gospel of John first, then his epistles to learn how to live with the assurance of salvation, and finally the book of Revelation to discover God's wonderful prophetic plan. John's biblical writings flow with God's love. He was the most beloved disciple of Jesus Christ. His most popular vers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explains the entire gospel in a single sentence (Jn. 3:16)! John's witness of God's love is so beautifully emphasized in today's Bible passage. Let's understand the kind of love John witnessed.

The witness of a true loving spirit sees God's great love for us, "We have come to know and have believed the love which God has for us. God is love, and the one who abides in love abides in God, and God abides in him"(1 Jn. 4:16). God is love! To live a love-filled life is to be God-filled! God's love for us is so great that it builds within each believer such a strong relationship, "See how great a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that we w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such we are. For this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because it did not know Him"(1 Jn. 3:1). Jesus called John and his brother James while they were fishing (Mk. 1:19-20). They both immediately left their work and families to be with Him. There was something very special about that call of love that John and Jesus' other disciples could not resist. How blessed they were to be called by Christ! John could not reject Jesus' invitation because Jesus' love was too strong. He walked with Jesus for three and a half years, and witnessed God's love in action. He learned about the practice of love from Jesus. When a village of the Samaritans rejected Christ, John and his brother said, "Lord, do You want us to command fire to come down from heaven and consume them?"(Lk. 9:54). Jesus rebuked them and said, "You do not know what kind of spirit you are of; for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destroy men's lives, but to save them"(Lk. 9:55-56). John learned how Jesus loved people, like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Jn. 4:7-30) and the adulteress at the temple (Jn. 8:10-11). John watched and listened to Jesus, and he saw how Jesus handled all different kinds of people. He witnessed God's great and real love for us.

The witness of a true loving spirit sees the need to love others,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from God; and everyone who loves is born of God and knows God. The one who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for God is love"(1 Jn. 4:7-8). God is love! He wants us to share His love with other believers, "Beloved, if God so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1 Jn. 4:11). John said, "We know that we have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because we love the brethren. He who does not love abides in death. Everyone who hates his brother is a murderer; and you know that no murderer has eternal life abiding in him. We know love by this, that He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the brethren. But whoever has the world's goods, and sees his brother in need and closes his heart against him, how does the love of God abide in him? Little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 or with tongue, but in deed and truth"(1 Jn. 3:14-18). Self-sacrificing love is required of believers. Though not many are called on to sacrifice their physical lives, all can give sacrificially of their physical resources. You've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when you love other Christians. The proof is in your love. It is an unmistakable mark of salvation. We cannot love God and hate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Here we find a very strong word, 'murderer', to describe those who don't love their brethren. We can know all the facts of the gospel, but if we don't practice our faith we can be spiritually dead. Our spiritual temperature is revealed on the thermometer of love. Selfishness is the opposite of love.

The witness of a true loving spirit sees the greatest example of love at the cross, "By this the love of God was manifested in us, that God has sent His only begotten Son into the world so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In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1 Jn. 4:9-10). The cross is the greatest example of God's love. Jesus died on the cross to bring salvation to us. John stood at the cross and was commissioned by Jesus there, "When Jesus then saw His mother, and the disciple whom He loved standing nearby, He said to His mother, 'Woman, behold, your son!' Then He said to the disciple, 'Behold, your mother!' From that hour the disciple took her into his own household"(Jn. 19:26-27). John was the last disciple to witness Jesus' dying on the cross; all the others had run away. His witness about the cross is clear,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Jn. 3:16). He learned at the cross that God loved him and that God had work for him to do. Indeed, God's love is demonstrated in the death of Christ for us.

My dear friends,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told someone of God's love? What have you done to show your love for other Christians? Does the love of God motivate you and empower you to witness about the cross? Let's remember,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casts out fear, because fear involves punishment, and the one who fears is not perfected in love.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If someone says, 'I love God,' and hates his brother, he is a liar; for the one who does not love his brother whom he has seen, cannot love God whom he has not seen. And this commandment we have from Him, that the one who loves God should love his brother also"(1 Jn. 4:18-21). Amen. 

사랑의 증거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①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 ②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③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7~21)”



김성판 목사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의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요한은 요한 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다섯 권의 성경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전도와 기독교의 부흥을 위해 이 책들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가장 먼저 요한복음을 읽기를 권고받습니다. 이어서 서신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배우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요한이 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그의 성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는 한 구절로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한의 증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본다

참 사랑의 영의 증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풍성한 삶은 하나님으로 풍성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심오해서 각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확고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함이라”(요일 3:1).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막 1:19~20). 이 부르심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즉시 자신들의 일과 가정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랑의 부르심에는 요한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 될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며 예수님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요한과 그의 형제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눅 9:54)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며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눅 9:55~56, KJV한글성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우물거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요 4:7~30)과 간음하다 잡혀 성전에 끌려 온 여인(요 8:10~11)의 경우에서처럼 사람들의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주시하며 경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참된 사랑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본다

참 사랑의 영의 증인은 사랑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본다면,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7~8).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신자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마땅하다”(요일 4:11). 요한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지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나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이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4~18)라고 권고했습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이 신자들에게 요구됩니다. 비록 실제 삶에서 회생을 요구받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기꺼이 모두 내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죽음에서 벗어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살인자’라는 매우 강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온은 사랑의 온도계에 표시됩니다. 이기심은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증거

참 사랑의 영의 증인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최고의 모델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9~10).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위대한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옆에서 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요 19:26~27).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목격한 최후의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의 증언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요한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보여 준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십자가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요일 4:18~21). 아멘 ■

예루살렘 오케스트라

예루살렘 오케스트라

어린 아이처럼, 순순한 믿음으로

작년 9월 10일, 금요찬양집회에 첫 선을 보인 예루살렘 오케스트라. 그들의 시작은 어느 오케스트라와는 확실히 달랐다. 충현음악아카데미를 통해서 처음으로 악기를 배운 지 불과 3~4개월밖에 안 된 학생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실상악으로 유포, 음정, 박자 등 음악과는 거의 관계없고, 평균 나이 50~60대인 그들이, 2011년 신년감사예배 시에는 예배 전 찬양까지 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헌신한지? 정말 내일 복습도 안가져도 된다는 필요일 새벽이었지만 그들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와 나사렛에서 한창 연습 중이었다.

예루살렘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 예루살렘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예루살렘 찬양대와 마찬가지로 대원들이 나이가 많으며, 가장 큰 특징은 악기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들이 주축되었다는 점입니다. 거칠고,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일주일 내내 금요찬양 집회에 드려질 찬양을 준비하여 소망합니다. **조희정 집회**

예루살렘 오케스트라의 악기와 대원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40여 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악(교는 바이올린, 첼로)과 있고, 관악기로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 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색소폰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 후, 금요찬양집회 3시간 전에 나와 연습하고 있습니다. **장영희 집회**

예루살렘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우리는 은혜는?

• 세상 일로 바쁘게 살아가던 나에게 주님은 예루살렘 오케스트라를 통해 믿음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금요찬양집회가 너무나 기쁘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큰 은혜와 영성,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은숙 집회**

• 오케스트라에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주님이 인도하신 코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꼭도록 찬양하고 싶습니다. **김혜숙 집회**

• 먼저 오케스트라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느껴 왔지만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면서 마음속 깊이 은혜를 한층 더 느끼며, 연습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동됨을 잘실하게 느낍니다. **이영희 집회**

• 분주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내서 연합함으로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게 되어 가슴 벅차고 즐겁습니다. **송은주 집회**

• 이렇게 악기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봉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평소 마음만 있었지 실행하지 못했던 주님 향한 작은 실천을 이렇게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놀라운 결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연희 집회**

• '도래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저를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불러주시고 매일같이 주님의 성령을 연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저를 사도로 사용하시니 사도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집회**

• 나의 생활 중심이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자 나나 깨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길을 이루어 가는 데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은주 집회**

• 주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악보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찌든 사물처럼 악기로 천국의 언어를 연주하게 하신다. 이 어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노년을 사용해

주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최희라 집회**

•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또 목말랐었고, 학교 다닐 때 음악시간에 선생님께서 때 잊으면서 못 알아들었던 조연희(아이저, 마리아)의 기쁜구조를 오케스트라를 지도해 주신 위임목사님의 특권을 통해서 이해하는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김현정 집회**

• 악기에 문화인인 제가 악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 참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매주 금요찬양집회의 찬양과 월요일새벽기도회 후 연습시간이 저에게는 은혜와 도전의 시간입니다. **김현정 집회**

• 오케스트라의 한 멤버가 된 것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새해 첫 시간에 드러진 예배에 예배 전 찬양을 자들이 담당해서 (할렐루야를 연주하다!!) 첫 시간부터 함께 한 시간을 아는 저에게 이 일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영희 집회**

• 음악의 '줄' 지도 모르면 저에게 악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 따라 용기를 내어 플라리넷을 연습하면서 60 평생 음치였던 삶이란 제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적 같습니다. 연습을 하며 삶에 풍성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누립니다. **한영희 집회**

•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악기로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오케스트라를 만드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모습에서 자히 단원들을 힘을 얻고 또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최희라 집회**

• 기적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의 영광만 기리고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최이인 악기를 연주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영희 집회**

예루살렘 오케스트라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 기적의 공동체. 왜-하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정 집회**

• 주님이 주신 선물. 왜-하면 찬송을 많이 알게 되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한영희 집회**

• 은혜. 왜-하면 연습 때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은주 집회**

• 기쁨으로 찬양 가는 길. 왜-하면 날마다 주님의 성령을 찬양하면서 기쁨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은주 집회**

• 토(장)이 아닌 주님의 만능. 왜-하면 찬송과 같은 나를 주님의 기쁨만 도구로 빚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최희라 집회**

• 행복. 왜-하면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김혜숙 집회**

• 기도와 말씀. 왜-하면 부족하기에 기도하게 하고 말씀 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영희 집회**

• 또 하나의 감사함. 왜-하면 연습과 찬양을 하면 할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한영희 집회**

• 생명의 양식. 왜-하면 매일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이은주 집회**

• 주님이 주신 기적. 왜-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주님을 연주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최희라 집회**

• 생명의 물. 왜-하면 늘 갈급한 나의 심령을 악기로 채워 주기 때문입니다. **조희정 집회**

• 감사. 왜-하면 감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김은숙 집회**

•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기쁨. 왜-하면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떠나 찬양하며 가장 큰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영희 집회**

• 행복한 가족. 왜-하면 자주 모여서 음악으로 현재 상태를 나타내며 서로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송은주 집회**

• 반석의 생물. 왜-하면 항상 기쁨과 생수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영희 집회**

• 삶의 큰 부분. 왜-하면 온 정성과 시간을 드려 연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한영희 집회**

• 자랑됨. 왜-하면 월요일 새벽연습시간을 위해 자정을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이연희 집회**

• 새 예루살렘. 왜-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간과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윤은정 집회**

• 선물. 왜-하면 이번주 곡은 무엇일까 기다림과 기대 속에 설레기 때문입니다. **최희라 집회**

• 만원경. 왜-하면 믿음의 눈으로 열광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혜숙 집회**

• 소중한 보물. 왜-하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영희 집회**

• 감사제. 왜-하면 주님의 하락 없는 참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희라 집회**

• 치료제. 왜-하면 나의 게으름 병, 게으른 습관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김현정 집회**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케스트라를 지도하시는 위임목사님으로부터 영혼의 대원들까지 나이, 경험, 지식,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연습 내내 즐거워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 아이들 같았다(마 18:3). 예루살렘 오케스트라 대원의 자각조언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단지,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한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받으시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계 7:10).



망글까지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사람이 많고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엸은 영혼을 구할 이 여가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주의 증인으로 세우시라, 죽어가는 인도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소명'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억의 인도의 인구 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영혼이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인도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인간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율종스러운 거짓 신들에 둘러싸여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 아버지께서 명하신 복음을 전하는 동안 만났던, 순수한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맑은 눈망울의 어린 아이들, 애맑은 미소의 여인들, 마땅히 이가 인상 깊었던 어찌될들의 순수한 모습이 또렷이 기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함과 순수함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기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아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 드리는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보내시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불모의 땅에 복음의 씨가 싹이 트게 해 주세요. 그리고 줄기를 내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를 보게 해 주세요.

그러하여 착마다 착한 인도의 영혼들이 예수님 보혈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시켜 주세요.

이러한 역사하신 속에 이 부족한 몸통아리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 주세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영택(청년1부)



오직 은혜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한 마디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을 바라보고 팀장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쓰레기통 같이 더럽고 내 생각과 욕심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시기에 보물창하라는 말씀, 그 보물을 잘 간직하며 나눠도록 더러운 쓰레기통을 매일 비워내는 자기 부인의 삶이 얼마나 필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 느끼며 대강 신앙 생활했던 모습들을 회개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자리의 중요성과 생자가를 지는 삶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느낀 귀한 선교였습니다.

“주님! 성령충만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만나는 공안들과도 적절한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공안을 만난 자리에서도 “당신은 공안입니까?”라고 웃으며 질문할 수 있는 여유도, 담대함도, 적절한 대화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공안들은 웃으며 저희를 보내주고 난 뒤에 예수님을 증거한 사실을 알고 경찰분청에 신고했고, 또한 운전기사 친구인 한 공안을 통해 호텔 급금 예정이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른 아침 떠나오는 그 자리에 바로 공안 차가 들어오고 저희는 이미 피하한 한 편의 영화처럼 주님은 저희를 보호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하노이의 공원과 호수에서의 사역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젊은이와 대학생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첫날부터 기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였고, 기사가 “공안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하며 사역 때 통역까지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기사의 집을 방문하여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공안을 만날 때 기사는 두려워 떨었지만 다음 번에도 이런 사역이 있으면 주님의 증거의 삶을 즐겼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김석영(청년, 7교구)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사역이라 마음도 들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일이라며 기뻐하였지만 곧 저희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3일째, 오후 사역을 위해 한 마을에 들었을 때 9살 가량의 남자 아이를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복음을 잘 듣고 영접기도 또한 잘 하였기에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알렸지만 그 아이는 조금 듣거나 싫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강력히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저희가 전해 준 전도지까지 찢으며 다른 가족이 복음을 듣는 것마저도 방해하였습니다. 저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옆집에 또 다른 할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약간 휘한 듯한 할머니는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당신의 말만 쏟아 내었습니다.

저희는 낙심하여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라 생각하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기 전 “기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팀장님의 말씀에 다른 마을 입구에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자 한 첫 번째 집에서 저희를 기다렸다는 듯 어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였고, 그곳에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비하여 주신 8명의 대가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한 복음을 모두가 잘 듣고 큰 소리로 영접기도를 따라하며 마지막엔 “할렐루야! 아멘”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큰 소리로 주님께 찬양했으며 손에 손을 잡고 주님께 승리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살아 계신 것과 저희를 깨닫고 주님의 일을 이루신 모든 사역에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한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영현(성도, 10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8일(화) ~ 2월 17일(목)	24교구 1팀	왕순화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31일(월) ~ 2월 8일(화)	대학부 1팀	남승송
1월 31일(월) ~ 2월 8일(화)	대학부 2팀	정인선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5일(화) ~ 2월 1일(화)	고등부 1팀	김영환
1월 25일(화) ~ 2월 1일(화)	고등부 2팀	김봉화
1월 28일(금) ~ 2월 5일(토)	중등부 1팀	현준봉
1월 28일(금) ~ 2월 5일(토)	사영·청년부 연맹	박인호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가정

주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당신의 가정은 기도한 대로 축적 이루어지고, 참 잘 되는 것 같더라 감사할 재목이 많을 거라고 말한다. 참으로 지난 해를 되돌아보니 목회의 비전을 받은 남편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8년간 배를 문을 정도로 정성을 다한 직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준비한 지 반 년도 안 되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하신 일, 또 2010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둘째를 갖고 싶다면 금식 기도예 아이를 임신하게 하신 일, 또 첫 아이 출산 후 자궁이 협착되어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12월 초에 2.5kg의 작은 아이를 일찍 태어나게 하신 일, 가정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첫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게 된 일, 우리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사 직분을 허락받아 교회에서 더욱 쓰임받게 하신 일,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성경 필사를 시작하여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 가시고,

역시 믿지 않는 시아버지께서 타교회 새가족 초청 잔치에 다녀오신 일 등 헤아려 보면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감사재목이 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별이 없어 내 개인의 실일조를 못 해도, 산후조리를 하느라 주일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교회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만족하게 해 드릴 수 없지만 이 낮고 연약한 자를 위해 그 귀한 몸 버리시고, 구원에 주신 십자가 은혜아름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아닐까?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이다(갈 6:14).

2011년 한 해에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며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가정이 되리라.

"주님! 이 한없이 부족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며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결단한 자가 되게 하소서, 평생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남구(집사, 청년2부)

의심을 다 버리고

여기 오지선다형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조금씩 꼬아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답을 위한 참고서를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자가 실수를 한 것일까요? 문제지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답을 알려 줄 리가 없다며 또 다른 모형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것이 답이었음을 압니다. 그리고는 힘들게 고생한 시간들을 아쉬워 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쩌지 또한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모습이 항상 주님의 답 앞에서 그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엔 어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 앞에 주님의 음성은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이러는 시간들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 땅 다 열려 놓고 네 구주를 영접하라."

이은정(청년1부)

주님께서 지으실 미소

'몸 안의 지식'이란 옛말처럼 어느 새 훌쩍 커 버려 손에서 떠나버린 우리 아이들. 이제는 기도뿐, 더 이상의 혼계도 정계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한 듯하다. 민일 다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많았던 내게 하나님은 영혼이 맑은 많은 아이들을 맡겨주셨다. 영아부 신임반 교사로서.

주변의 권유나 유아세례식을 통해서, 또는 자발적으로 영아부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믿음의 엄마 아빠와 아기를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하다. 사랑하는 아기에게 세상을 알게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하는 엄마 아빠들, 때때고 울고 지는 중에도 말씀과 찬양을 듣고 배우는 아기들. 비록 대예배 시간처럼 거룩하고 엄숙하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날로 날로 자라나는 아기들을 보면 주님께서 지으실 미소가 떠오른다.

하지만 때론 주위 어른들 때문에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가정들과, 영아부 예배를 소홀히 여겨 어른들의 편의 위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그 아기들을 위한 더욱 간절한 기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나는 우리 영아부 아기들이 자라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아니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웠으면 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기도한다. 내게 맡겨주신 영아부 아기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못 다 배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면서 살고 싶다.

김경숙(교사, 영아부)



주의 능력을 네 안에 가두지 마

대학부에서 몇몇 형제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예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된다고 느껴져서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옳은 건가,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 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한 형제가 "주님은 본은 하나님이니라, 주의 능력을 네 안에 가두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주님의 능력을 나 스스로 제한해 버리는지, 주님이 예비해 두신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내 멋대로 주님의 능력을 판단해 버리고 스스로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시는 본은 주님이시니,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애(대학부)



나의 첫 번째 추모예배

그것이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는 구제역 파동에 한바퀴 더해서 제사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아쉽고 연 전 나의 첫 추모예배가 생각났다.

이십오 년 전의 일이다. 천주교 신자였던 나는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온 후, 우여곡절 끝에 개종을 하면서 시댁 온 식구가 다 함께 충현교회에 등록을 하고 믿음생활을 시작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른 점이 참 많았지만 가장 고인전했던 것은 제사 문제였다. 천주교에서는 초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개종 전까지 친정부모님 제사는 무남독녀인 나를 위해 사촌동생이 대신 지내고 있었다. 그동안은 부모님의 제사를 대신 지내 주는 사촌동생이 말할 수 없이 고맙기만 했었는데 개종을 하고 나니 그것이 마냥 고맙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삼년의 고인 끝에 우리 집에서 추모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제사 대신에 추모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날이 되었다. 며칠 전부터 남편과 추모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지 의논했지만 보폭한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 물어보아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라는 말뿐이었었는데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이 더 부담스러웠다. 여러 날 고인 끝에 믿음의 선배로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께 추모예배를 인도해 주신다고 부탁을 드렸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하시던 집사님은 우리가 워낙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승낙을 해주었다.

우리 집에서 내 손으로 차를 차려 드리는 추모예배니만큼 정성껏 근사하게 모시고 싶었다. 해서 나를 부고 당국 꿇고 산책도 세 가지나 만들고... 전도 다양하게 많이 부쳤다. 추모예배 시간이 되어 우리 집에 오신 집사님은 눈이 휘둥그레 지셨다. 방 안의 커다란 교자상 위에는 제사상과 독간이 흥동해서 과일이 떡, 포, 나물, 산적 등은 갖 제사 음식이 수북이 차려져 있었고, 나는 자랑스럽게 집사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말 없이 서 계시던 집사님은 수북하게 잘 차려진 제사상 앞에 앉으시더니 예배를 인도하셨다. 예배 드리는 내내 난 참 호호하고 기분이 좋았다. 내가 생각해도 딱 떨어지게 잘 잘 차려진 제사상이었기 때문이었다. 부모님에게도 많이 차려 주는 제사에 흠족해 하실 것 같았다. 그러나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마친 집사님이 남편과 나를 정중하게 부르시더니 다시 한 번 예배를 드리고자 하셨다.

사실은 이런 자리에 내가 참석할 자리는 아니었지만 믿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가 자칫 잘못 우상을 섬길까봐 걱정하셨고 하시면서 집사님은 내 행동에서 부모님에 대한 정성을 보셨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무안해 할까봐 차려진

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시며 부모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그저 웃음만 나오지만 그날은 얼마나 부끄럽던지. 이렇게 나의 첫 추모예배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 후, 우리 집의 추모예배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사진을 보여 주며 두 분을 알려주는 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님이나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도 아나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전 8:4-6).

한용숙(집사, 23교구)

Tip. 추모예배

—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추모예배 시 고인만을 추모하는

대서 끝나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축복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리새는 대예배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 추모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례에 대한 소양과 믿음의 삶을 위한 은혜를 구해야 한다.

— 촛불을 켜거나 양을 피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음식은 예배 전에 차려놓아서는 안 되며, 준비한 음식은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



새가족양육부 1월 수료자

십자가는 예수님이다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하영호)

친구와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옆에 항상 계시며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나와 본래 지닌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회생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이 웃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박준현)

친사 대표님의 전도로 왔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교회와 사회 모든 것이 좋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민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지만 집 근처 놀이터에 다닌다는 생각으로 다녔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세상에서 저를 볼 필요가 있었고 영적으로 접근하여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과 설교와 교류를 통해 항상 저의 마음을 채워주고 자제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승도)

이모님의 전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사람이 많으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저절로 손이 모아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매사에 감사하게 되었고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숙)

마음실 원장님의 전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하고 싶어 등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건강과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항상 내 마음에 계시니다. 감지기 전 모든 일을 반성하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며 겸손하겠습니다. (함영현)

친구의 전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에 와서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광민)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